

유람선 항로 막고 경관 훼손...엑스포 성공 걸림돌

여수 가막만 양식장 이설 '딜레마'

700억대 비용 엄두 못내 양식 어민들 강력 반발도



가막만 앞바다에 설치돼 있는 양식장 시설물. 여수세계엑스포 개최를 앞두고 만바다로 이설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여수시 제공)

2012 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서는 가막만 양식장 이설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가막만 일대는 212ha 규모의 통합 양식장이 설치돼 해상에 부표와 로프가 거미줄처럼 산재해 있으며 소호요트장 앞 해상엔 폭 200m 정도의 항로만 남겨둔 채 통합양식장이 들어서 있다.

이때문에 요트와 유람선 항해에 지장을 주는 것은 물론 경관까지 해치고 있어 세계박람회 개최 전까지 철거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세계박람회에 맞춰 거북선형 유람선을 만들어 소호동 디오선리조트~엑스포 행사장~경남 남해·하동을 연결하려는 프로젝트도 양식장 시설물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여수 소호요트경기장에서 열렸던 '제 22회 대통령배 전국 시도대학 요트대회'에 참가한 수백 명의 요트들이 양식장 시설물에 걸려 레이스가 2시간 이상 지연되기도 했다.

따라서 안전한 요트경기를 위해서는 5~7km 떨어진 해상까지 나가야 돼 일반인들이 해안가에서 요트경기를 관람할 수 없는 실정이다.

전남도와 여수시는 세계 박람회를 앞두고 양식

장을 먼 바다로 옮겨 집단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700억원대에 이르는 막대한 예산확보와 어민들의 반발이 사업추진을 어렵게 하고 있다.

양식어민들은 생활터전인 양식장을 뚜렷한 해결책 없이 무작정 옮길 수 없는데다 먼 곳으로 이설하더라도 고유가로 인해 양식장 관리 비용만 증가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또 정부에서 양식장 이전에 필요한 예산지원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 국고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수시 관계자는 "정부에 가막만 생태복원 및 생태 친화형 양식단지 조성을 건의해 놓은 상태"라며 "해양경관을 해치는 수상양식장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는 대신 수중양식장이나 살포식양식장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수=박양규기자 ykpark@kwangju.co.kr

순천 드라마 세트장 '인기몰이'

드라마 '에덴의 동쪽' 시청률 급상승 주말·휴일 평균 1천여명 관광객 찾아

MBC 드라마 '에덴의 동쪽'의 시청률이 급상승하면서 이 프로그램의 야외 촬영장인 순천 드라마세트장을 찾는 관광객들이 늘고 있다.

에덴의 동쪽은 '한류스타' 송승헌을 비롯해 연정훈, 이다해, 한지혜, 유동근, 이미숙, 조민기, 박해진 등 유명 탤런트들이 대거 출연하며 제작비로만 무려 250억 원을 투입한 대작으로, 방영 6회만에 시청률 20%를 돌파하는 등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에덴의 동쪽은 지난 8월 방영에 앞서 지난 2월부터 20여일 동안 순천 드라마세트장에서 촬영을 했고, 앞으로도 촬영이 예정돼 있어 프로그램의 인기 상승과

맛풀러 드라마세트장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 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지난 2006년 SBS 드라마 '사랑과 야망'을 촬영하기 위해 조례동 옛 군부대 터에 지어진 드라마세트장에서는 그동안 '마파도 2', '남은 먼곳에', '올해 간 영화제' 출품 예정작인 '블러드 웨이크' 등 영화 5편을 촬영하는 등 영화와 TV 프로그램 세트장으로 자리를 굳혀가고 있다.

이처럼 영화와 TV 프로그램을 통해 드라마세트장이 알려지면서 주말과 휴일에 평균 1천여명의 관광객들이 세트장을 찾고 있으며 '에덴의 동쪽' 방영 이후 관광객들이 10% 가량 늘었다.

이에 따라 순천시는 순천만과 낙안읍성, 드라마세트장 등을 연결하는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등 드라마세트장을 관광자원으로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동부취재본부=지광원기자 light64@

동부권 기업 76% "4분기도 경기 위축될 것"

순천관양상의 100개 표본 제조업체 조사

올 4·4분기에도 전남 동부권 기업이 위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순천관양상공회(회장 최근)는 순천시를 비롯해 광양시, 구례·보성군 등 관내 100개 표본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4·4분기 기업경기 전망을 조사한 결과 75.5%가 현장 체감경기가 호전되지 않을 것으로 예측했다.

기업들의 현장 체감경기를 수치화한 '기업경기 실시지수'(BSI)도 경기 약화를 의미하는 98로 나타났다.

응답업체 가운데 4분기 경기가 지난 3분기에 비해 좋아질 것이라고 전망한 업체는 24.5%였으며, 악화될 것으로 전망한 업체는 26.4%, 지난 분기와 비슷할 것이라고 응답한 업체는 49.1%로 조사됐다.

특히 올 3분기 실적저는 77로 조사돼, 지난 2006년 3·4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보여 경기침체가 가시화되면서 기업들의 현장 체감경기가 상당히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기업경기 실시지수'(BSI)는 기업들의 현장 체감경기를 수치화한 것으로 100을 넘으면 경기 호전, 100 미만이면 경기 약화를 의미한다. /동부취재본부=지광원기자 light64@

"거문도 들고양이 어찌나"

당국 "포획·안락사" 방침에 동물보호단체 "역효과" 반발

다도해 국립공원의 외딴 섬 거문도 들고양이 처분 방법을 놓고 관계 당국과 동물보호단체가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영산강유역환경청과 여수시는 거문도에 서식하고 있는 들고양이가 800마리 가 넘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거문도 주민이 1천600명인 것과 비교하면 사람 2명당 고양이 1마리가 '동거'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환경청과 여수시, 다도해해상국립공원 관리공단 등은 이달부터 대대적으로 들고양이 포획작전에 들어가 잡은 고양이는 안락사를 거쳐 소각하기로

했다.

1년에 2차례 3~6마리씩 새끼를 낳는 들고양이의 놀라운 번식력으로 인해 민가 피해를 물론 생태계를 크게 교란시키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 같은 환경청 방침에 대해 동물보호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8년 전에도 대규모 살처분이 이뤄졌던 거문도에서 들고양이 개체수가 다시 늘어난 까닭은 무작정 잡아들이기만 하는 '후진적'인 방법을 택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보호단체들의 주장이다.

이를 단체인 "들고양이의 '씨'를 말렸다"고 오히려 쥐와 토끼가 급증하는 역효과를 냈다는 외국 사례도 있다"며 계획 수정을 촉구하고 있다.

/여수=박양규기자 ykpark@

전자정부 추진 평가 광양시 최우수기관

광양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07년도 지방자치단체 전자정부 추진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전자정부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전국 16개 시·도와 230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광양시는 정보화 신규투자 예산비율, 정보화교육 수준 등 변화관리 부

문과 활용, 정보화 추진 우수사례, 보안수준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한편 광양시는 지난 8월 '전국 정보화마을 운영평가'와 '전남도 공무원 정보화경진대회'에서도 최우수기관에 선정돼 정보화부문에서 전국 최고의 기관으로 평가 받고 있다.

/광양=김춘호기자 chkim@

순천 해룡면 상수도 내년 1월 조기 완공

순천시가 오는 2011년 5월 말 준공 예정이던 해룡면 상내·하사지구 상수도 시설 공사를 내년 1월 말 조기 완공할 계획이다.

순천시는 상내·하사지구 4개 마을 364가구 주민들이 지하수 사용으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는 민원에 따라 상수도 시설 공사 기간을 2년 이상 앞당기기로 했다.

/동부취재본부=지광원기자 light64@

여수시-佛 라로셀시 '우호 교류' 협력기로

여수시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프랑스 라로셀시와 우호교류를 추진하고 있다.

오현섭 시장과 박정재 시의회의장 등 여수시 방문단 일행은 최근 프랑스 3대 관광도시로 알려져 있는 라로셀시를 방문, 막심보노(Maxime

BONO)시장과 행정, 교육, 문화, 예술, 경제 분야에 걸쳐 교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라로셀시는 프랑스 대서양 연안 항구도시이며 면적 28.43km², 인구 7만명의 관광휴양도시이다.

또 전통적인 무역항으로 해운과 교역이 발달했고 한국어과거가 개설돼 있는 라로셀대학이 있는 등 교육 도시로도 알려져 있다. /여수=박양규기자 ykpark@

光州日報 전남동부취재본부

- (061-908-8111)
- 순천 여수 광양 고흥 보성 구례
- 본부장 김동호 국장
- 김창중 부국장
- 박양규 부장
- 지광원 차장
- 김춘호 차장
- 김은중 기자

대승공인중개사

☎ 062)954-7700, 010-9468-7959

토지구합 수완지구 아파트 매매·임대전문

토지매매

- ▶순천지구 333-1(경외면가동) 60㎡대 상가용지 3천여㎡
- ▶순천지구 333-1(경외면가동) 60㎡대 상가용지 3천여㎡
- ▶순천지구 333-1(경외면가동) 60㎡대 상가용지 3천여㎡
- ▶순천지구 333-1(경외면가동) 60㎡대 상가용지 3천여㎡

노블레스센터 임대분양

- ▶순천지구 중심상권
- 1층: 약 1층 지상 5층 연면적 5,000㎡
- 1층: 약 1층 지상 5층 연면적 5,000㎡
- 2~5층: 병행/내과/소아과/안과/피부과/아인/비과 등 임대/경쟁수 22명
- 원리/자녀유치원 및 외의 주저장/실내/주거공간 100% 확보

수완지구 아파트 분양권 거래전문

① 수완지구 용지매매 및 개발상담 ①

부동산 경매계의 자부심!

대중법률(주)

T.062)229-9900 010-3619-1214

지역	소재지	면적(㎡)	건평(㎡)	최저가	비고
동구	관산동 상가	105	15/11	8천여	6천여
	관산동 상가	89	15/6	5천여	3천여
서구	관동동 상가	105	20/17	1억여	1억
	관동동 상가	82	12/7	6천여	4천여
	관동동 상가	100	20/7	1억여	7천여
	관동동 상가	89	20/7	6천여	6천여
남구	관동동 상가	105	20/10	9천여	8천여
	관동동 상가	105	21/19	9천	9천
	관동동 상가	165	24/11	2억여	1억여
	관동동 상가	89	15/3	4천여	3천여
북구	관동동 상가	99	15/9	8천여	6천여
	관동동 상가	98	13/7	4천여	2천여
	관동동 상가	105	20/16	9천	8천여
	관동동 상가	79	20/3	4천여	3천여
관산구	관동동 상가	105	17/13	6천여	5천여
	관동동 상가	82	22/8	5천	3천여
	관동동 상가	105	20/18	8천여	5천여
	관동동 상가	112	17/13	6천	5천여
관동구	관동동 상가	122	15/7	1억여	8천여
	관동동 상가	79	13/8	5천여	3천여
	관동동 상가	105	15/8	1억	7천
	관동동 상가	105	15/8	1억	7천

대인동상임부동산

☎ (062)223-1140, 3210 011-602-2532

좋은 자리에 상가 건물을 싸게 사실분

상가 전문소개업체인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광주시내 전지역 상가중점

포기 잘 형성되어 월세가 더

른지역보다 더 많이 나오고

앞으로 더욱 좋아질 비전있

는 곳으로 1층 점포가 4~5

칸 정도에 점포가 여러칸인

상가를 대표적인것만 골라

물건을 많이 확보하고 있어

일일이 광고하지 않습니다.

시장님께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실 때에는 상가전문 소

개업체인광주에서 오랜전통

있는 저희 부동산에 꼭 한번

방문 하시면 책임지고 최선

을 다하겠습니다.